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열



지난해 12월 친구들의 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로써 자신의 생을 마감한 안타깝고 슬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도교육감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을 의논하고, 언론 매체들은 연일 학교 폭력의 원인과 실태,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때마다 문민정부에서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현 MBC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학교폭력 대책을 주문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매번 반복적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다.

2004년에 제정된 협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그러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타인 존중 학습부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시·도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는 전문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균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얘기한다.

된다면,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를 엄두를 내지 않게 되고 학교폭력은 그에 따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주장으로서 대구 중학생의 자살사건 이후에 폐쇄 특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신고체계의 구축과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환경의 조성은 가해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의 표출을 억제할 뿐 그것의 내면적 원인인 공격적 심성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공격행동에 대한 모방학습 연구에 따르면 폭력행동으로 벌을 받는 것을 본 아이

들조차도 공격행동에 대한 모방학습을 하고, 특정의 상황에서는 폭력이나 공격행동을 표출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방학습은 공격성의 형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모방학습은 공격성과는 다른 여러 마음의 형성에도 일어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들이 학교内外에서 폭력적 행동과 공격성을 학습하는 기회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을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

TV 드라마 등의 등장인물이나 지도자 등 대구 중학생의 자살사건 이후에 폐쇄 특례를 얻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약자들로 부시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공격성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학습하고 기르게 될 때 학교폭력 예방하는 근본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대 부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김포천

광주공연예술의 트네상스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새삼스럽게 기억된다. 어린이 연극제도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광주문화예술인들의 밤보임(얼굴과 얼굴)에서는 참석자들이 즉흥연극을 해보기도 했다. 그 시절, 광주연극이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광주공연예술은 어떤가. 연극과 무용, 장르별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극장 활동, 극단별 단체별로 변화 모색, 실험작업 등 조건 속에서도 껍질을 깨고 나아가려는 봄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태지역에 비해서 앞서나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다.

조선대학교 극회가 '백마산성'을 비롯한 대작들을 해마다 공연했었고, 광주일보(당시 전남일보)사가 주최한 광주학생 독립 기념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연극제(경연대회)는 서울지역의 고등학교도 참가하는 전국규모의 연극제로 광주 연극의 위상을 전국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유치진(柳致真) 선생(극작가, 한국현대연극의 태도, 초대 국립극장장)께서 "이렇게 폐쇄한 시대에 광주 연극이 한국 연극에 헤어리기 어려운 큰

대학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연극이 어렵다면, 중학교, 초등학교 연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연극도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작비도 배려해주어야 하고, 연출, 기술, 스텝 등의 지원도 있어 마땅하다. 연극은 인간과 삶에 대한 감수성을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목마다, 동네마다, 학교마다 작은 규모의 예술활동이 모이고 쌓여서 도시의 총체적인 문화예술역량을 증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공연예술에 자극이 필요하다. 문예회관이나 문화재단에서는 일 년에 한두 차례라도 세계적인 공연 예술작품을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브랜드 공연작품이라는 것이다. 광주라는 도시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공연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기획이다. 기획이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초빙 가능한 최고의 기획 인력을 찾는 것이다. 다수일 필요도 없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가릴 것도 없다. 올림픽 공연을 기획하는 수준의 인사로 초빙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광주사람 절반 타지역 사람 절반으로 기획 위원회를 만든다. 이 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특출한 상상력이 기본 개념을 추출하도록 하고 예술감독을 선임한다.

교향악단에서 음악감독이나 지휘자가, 비엔날레에서 예술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공연예술에서도 역시 예술감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 중에서도 초빙해 볼만하다. 시립극단 운영 또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성공 공연작품은 원작이 있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세계적인 명작과 광주의 5·18을 접목시켜 한국의 전통적인 가락으로 공연작품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광주 5·18기록물을 영상, 음악, 무용과 함께 입체 낭독형식으로 무대에 올리는 것도 생각해볼지.

2012년 올해에는 광주에서 전국 연극제가 열리고 시립극단이 탄생하며 국제 규모의 아리랑 공연 축제가 막을 올릴 예정이다.

올해를 광주공연예술 트네상스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하는 소망이다. <극작가>

하다. 어떤 수술의 경우에나 모두 좋은 재료는 없으며, 수술에 따른 적절한 수술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실리콘 보형물로서 수십 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됐지만 이를 반응이 드물게 있고, 이 경우 다시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는 고어텍스의 사용이 늘어났다. 고어텍스는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거나 틀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자가조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들질 보형물에 비하여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술 자체가 크기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리는 단점과 흡수로 인한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간단히 보이는 고수술이라고 해도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술법과 재료의 사용이 필요하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수술법을 결정해야 한다.

<SM미성형외과 원장>

시설

고금리 대부업체로까지 내몰린 '2030'

'2030세대'(20~30대)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벌렸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는 운행권에서 돈을 벌릴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연 40%대 고금리를 무릅쓰고 급전을 빌리는 곳이라는 점에서, 신용불량자가 될 공산이 크다. 이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쪘느냐였을 때 대부업체 문까지 두드렸을까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개인채무 회생 접수건수는 319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792건보다 14.5%가 늘어났다. 분석 결과 2010년까지는 40대 이상과 대출기간 5년 이상인 채무자가 가장 많았으나 작년에는 26~31세의 1년 이내 채무자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젊은층의 신청 급증은 소비와 함께 쉽게 돈을 벌릴 수 있는 대부업체 증가 등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보다 근본 원인은 세제·회생·수준인 대학 학자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형편

전남도 부패 방지 노력 이렇게 미흡해서야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꽂찌에 머무른 전남도가 부패 방지 노력에서도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꼽혔다. 또 광주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대병원의 반부패 노력도 극히 소홀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내놓은 '201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패 방지 노력이 가장 미흡한 5등급으로 조사됐으며, 최근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15위를 차지해 고질적인 부패 풍토에 대한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남대병원도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미흡'(5등급)을 받았고, 광주시도 '미흡'(4등급)을 받아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직자와 청렴해지려면 무엇보다 공무원 각성과 일대 풍토 세성이 중요하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 공공기관에선 부산시의 경우처럼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지위 고하와 액수 과다'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하고, 시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강도 높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와 청렴해지려면 무엇보다 공무원 각성과 일대 풍토 세성이 중요하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 공공기관에선 부산시의 경우처럼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지위 고하와 액수 과다'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하고, 시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강도 높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렴도가 높은 자자체의 공통점이 반부패 정책을 고강도로, 그리고 부단히 펼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날이 갈수록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최근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의 퇴로 작성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심층분석'에 따르면 20년 사이 남녀 초혼 연령이 4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초혼 연령은 1990년 27.9세에서 2010년 31.8세로 3.9세가 늘어났고, 여성의 첫 결혼 나이는 같은 기간 24.8세에서 28.9세로 4.1세가 많아졌다.

이제 30대 초반의 미혼 남녀에게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게 됐다.

속칭 이들을 '삼포세대'라고 부른다. '삼포세대'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다. 너무도 우울한 신조어다. 이 세자를 포기하는 현상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다. 꼭 최근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삼포세대'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몇몇 전부처 특별한 사회현상으로 주목받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최근 소셜 데이팅 업체에서 미혼 남녀 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최재호 경제부 차장 lion@kwangju.co.kr

삼포세대

낳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역시 뻔할 것이다. 치솟는 육아비와 교육비, 부부 일상이 육아에 속박받는 것 같아서 일 것이다.

젊은이들의 고민은 기성 세대의 큰 관심사다. 더불어 출산율은 국가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미래의 동력인 청춘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나라의 장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삼포세대' 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김수환 추기경이나 법정 스님처럼 존재 그 자체만으로 대중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블로그 지도자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최근 소셜 데이팅 업체에서 미혼 남녀 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최재호 경제부 차장 l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이상혁

인상을 좌우하는 코

어릴 적 백설공주 동화책에 나오는 마귀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화살코와 매부리코이다. 만약 마귀 할머니가 화살코가 아니었다면 순한 할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듯 코는 얼굴의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코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가장 먼저 이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변화를 피하려면 코의 길이를 연장해 내리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코성형은 단순 용비술로 코를 단순히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특별히 매부리코나 화살코, 들창코 등이 없는 경우 시술이 가능하고 수술이나 허혈 시술로도 가능하다. 회복이 다른 수술에 비해 빨라 주말을 이용해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모양에 따른 적합한 수술을 통하여 코의 모양에 변화를 주면 이미지 변신이 가능하다.

코 수술에 있어서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도 중요

하다. 어떤 수술의 경우에나 모두 좋은 재료는 없으며, 수술에 따른 적절한 수술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실리콘 보형물로서 수십 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됐지만 이를 반응이 드물게 있고, 이 경우 다시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는 고어텍스의 사용이 늘어났다. 고어텍스는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거나 틀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자가조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들질 보형물에 비하여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술 자체가 크기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리는 단점과 흡수로 인한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간단히 보이는 고수술이라고 해도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술법과 재료의 사용이 필요하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수술법을 결정해야 한다.

<SM미성형외과 원장>

바다새에 피해주는 낚시 바늘 함부로 버리지 말자

낚시를 다니면서 항상 자연환경에 신경을 쓴다. 납덩어리 봉돌이 바다 환경에 몹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약간 비싸지만 다른 친환경적 봉돌을 구입해서 쓴다. 미끼도 너무 많이 쓰면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곳의 부영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바다에서는 가짜 미끼를 쓴다. 이건 바다 수질환경에 전혀 해롭지 않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별개로 우리